

금호타이어, 노사관계 '최악'·산업안전 '핑크'

지난해 매출 4조 414억·영업이익 4110억 사상 최대 실적 경영진, 조합원 희생 속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만 이익 몰아줘 노조와 임단협 거부해 파업 '초입기'... 사망사고도 잇따라

광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노사안정과 산업안전에 외면해 경영위기와 신인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내고도 노조와 임단협을 사실상 거부해 파업을 부르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어서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8-9일 진행된 정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정의행위(파업)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96.43%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원 3545명 중 3219명이 투표에 참여해 3104명이 파업에 찬성해 파업 초입기에 들어갔다. 정의권이 없는 제2노조와 현장관리 노조까지 포함하면 3918명 중 85%가 정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사측에 대한 불만과 반발 강도가 높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중국자본 더블스타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지역경제 발전은 무시하는 등 사회적 역할까지 외면하고 있다. 노사관계까지 적대적으로 일관한다면 파국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에 15만 9800원의 기본급 인상(7%인상)과 지난해 성과급 배분, 고용안정과 미래비전 제시, 신인조합원과 정규직 전환차 차별해소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같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지난 달 29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양측에 대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사항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8년 4월 중국 더블스타 그룹이 인수한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4조 414억 원, 영업이익 411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1456억원으로 전년 비 13.9%를 달성했다. 막대한 경영이익에도 사측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차례 2%대 임금인상만을 해왔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영업이익에 비해 인상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경영위기 때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경영정상화를 일궈냈지만 정작 노조의 요구안은 묵살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는 깊은 배신감을 토로한다. 노조는 지난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회사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소취하로 금호타이어는 확정 판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1700여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노조는 추산한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안전조치를 외면해 산재 사망사고와 부상자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서만 금호타이어 조업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지난 4월에는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공장(10일)과 곡성공장(29일)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일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7월 22일자 광주일보 6면)에서도 노동자가 참변을 당했다. 지게차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지게차에 실려있는 원자재가 40대 작업자에게 쏟아져 사망 사고가 났다.

▶2면으로 계속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금메달을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달 사냥에는 활·총·칼 배드민턴·주먹도 빛났다

파리올림픽 광주·전남 선수단 결산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뜨거웠던 17일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2일 오전 4시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18면>

48년 만에 최소 규모로 팀이 꾸려졌지만 한국 선수단은 국민들의 대대적인 응원 속에 일찌감치 메달 목표치를 뛰어넘으며 박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21개 종목 144명으로,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단체 구기 종목 부진 탓에 1976년 몬트리올을 대회 이래 48년 만에 최소 규모였다.

대표팀의 예상을 뛰어넘은 선전 속에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과 광주·전남 지자체 소속 선수들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며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탤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지난 11일 열린



PARIS 2024

근대 5종 결선 경기를 끝으로 파리 올림픽 여정을 마무리했다. 근대 5종에서 아쉽게 메달을 더하지 못했지만 광주·전남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과 복싱, 사격, 배드민턴에서 메달 소식을 전했다.

양궁 대표팀 '막내' 남수현(순천시청)은 첫 올림픽 무대에서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 은메달까지 획득했다. 특히 남수현은 임시현(한국체대), 전현영(인천시청)과 중국과의 결승에서 슛오프 접전 끝에 승리하며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신화라는 기록을 작성했다. 남수현은 개인전에서도 임시현과의 '집안싸움'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복싱 여자 54kg급 임애지(화순군청)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여자 복싱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임애지는 지난 도쿄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선 이번 올림픽에서 빛나

는 동메달로 한국 복싱의 새 역사를 썼다.

장성 출신의 '말년 병장' 조영재(국군체육부대)는 속사관총 종목에서 한국의 첫 메달리스트로 등극했다. 조영재는 대회 사격 25m 속사관총에서 은메달을 썼다. 그는 자신의 첫 국제 대회 메달을 올림픽 은메달로 장식하면서 이번 올림픽 '효도 종목'인 사격에 마지막 메달을 안겼다.

나주 출신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을 제패하며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아게임·아시아선수권을 모두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다. 안세영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 출전한 정나은(화순군청)은 김원호(삼성생명)와 이번 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합작하며 2008 베이징 대회(이윤대·이효정 금메달) 이후 16년 만에 혼합복식 메달을 획득했다.

팬싱 여자 사브르 최세빈(전남도청)도 윤지수·전하영(이상 서울시청), 전은혜(인천중구청)와 단체전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프랑스를 격파하며 사상 첫 결승 진출과 함께 은메달을 합작했다. 이혜경(광주교통공사)은 유도 혼성 단체전을 통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열전을 펼친 전웅태, 강영미, 김재원, 이혜경, 신은철 등 광주시 소속 선수단 5명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尹, 차기 검찰총장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사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심우정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



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극한 폭염에 해수욕장 '뒤통'·상인들 '한숨' ▶6면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인 - 한상원 상의회장 ▶9면

꿈꾸는 신종년 - 작곡가 겸 가수 조정수씨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